

한국 축구, 2022 카타르 월드컵 진출 유력

'벤투호'가 이재성(마인츠), 손흥민(토트넘),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이라크와의 카타르 원정서 완승을 거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전날 카타르 도하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있는 이라크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6차전에서 3-0으로 이겼다.

전반 33분 이재성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 한국은 후반에 손흥민이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켰고, 막내 정우영의 A매치 데뷔골로 쐐기를 박으며 대승을 기록했다.

4승2무(승점 14)가 된 한국은 최종예선 무패행진을 이어나가게 됐다. 이라크는 4무2패(승점 4).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의 하위권



▲ 페널티킥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는 손흥민. 사진=대한축구협회

팀들이 물고물리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레바논의 사이다에서 A조 6차전을 가진 아랍에미리트(UAE)는 레바논을 1-0으로 꺾었다. 아랍에미리트의 최종예선 첫 승리다. UAE는 1승 3무 2패로 승점 6점을 따내면서 3위에 올라섰다. 기존 3위였던 레바논은 승점 5점에 머무르며 4위로 밀렸다.

한국 입장에서는 고마운 결과다. 한국이 이라크와 6차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3위와 승점차가 8점으로 벌어졌다. 본선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대기록 작성을 코앞에 둔 것이다.

한편 2021년 모든 일정을 마친 한국의 다음 최종예선 경기는 내년 1월 27일 7차전 레바논전, 2월 1일 8차전 시리아 원정으로 이어진다.

"이현중 사상 첫 연속 50-40-90 가능"

이현중(21·데이비스 와일드캣츠)이 최정상급 슈터를 상징하는 50-40-90에 또 가입하여 미국대학농구 1부리그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USA투데이'는 이날 '2021-22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농구 디비전1에 대한 6가지 예상'에서 3번째로 이현중의 2년 연속 50-40-90을 거론했다. 50-40-90 클럽은 필드골 성공률 50%, 3점 정확도 40%, 자유투 성공률 90%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시즌 이현중까지 미국대학농구 1부리그 역대 12명은 모두 1번씩만 달성했다.

NBA로 범위를 넓혀도 연속 50-40-90은 1986-87-1987-88시즌 래리 버드(65·인디애나 페이스러스 특



▲ 이현중. 사진=twitter(davidsonmbb)

별고문), 2007-08~2009-10시즌 스티브 내시(47·브루클린 네츠 감독)가 전부다. 미국 대학·프로 최상위 무대에서 단 2명만 해낸 업적이라는 얘기가.

'USA투데이'는 "슈팅가드/스몰포워드 이현중은 NCAA 농구 디비전1 역사에 자기 이름을 확실히 새길 능력이 충분하다. 동료의 스크린을 활용하여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능하다. (슈팅 기회를 잡기 위한) 볼 핸들러와 호흡도 좋다."며 2년 연속 50-40-90 달성을 예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국대학농구 가이드북 '에슬론 스포츠 칼리지 바스켓볼 에뉴얼'은 이현중을 슈터랭킹 2위에 올려놓으며 2021-22시즌 1부리그 특급 슈터 중에서 스몰포워드도 가능한 높이를 겸비한 유일한 선수라고 봤다.

"류현진, 몸값 못했다"



▲ 류현진. 사진=mlb.com

메이저 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마친 류현진이 올해 연봉 값을 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스포츠 매체 블리처 리포트는 최근 올 시즌 선수들의 성적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류현진은 -72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해당 결과는 2021년 시즌 각 선수의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를 1.0 당 800만 달러로 환산해, 이 숫자에서 선수들의 올해 연봉을 뺀 값으로 산출됐다.

류현진은 2019년 시즌 전 4년에 8,000만 달러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했다. 올해 연봉은 2,000만 달러로 계산됐는데, 이번 시즌 성적이 현재 받는 연봉보다 720만 달러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

류현진은 올해 31경기에서 14승10패 평균 자책점 4.37을 기록했다. 시즌 전반까지는 팀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후반부터 부진을 면치 못했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에 실패했다.

류현진은 2019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2위, 2020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3위에 올랐다. MVP 투표에서도 2019년 내셔널리그 19위, 2020년 아메리칸리그 13위에 자리했다. 하지만 류현진에 대해 "이제는 에이스가 아니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바꾸려면 2022년 반등에 성공해야 한다. 다시 한번 에이스로 군림하면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 겨울도 차가울 수밖에 없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태너 로어크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내에서 최악의 수치인 -1440만 달러를 기록했고 류현진이 그 뒤를 이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p>메디케어</p> <p>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p>	<p>각종 보험</p> <p>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p>	<p>교통사고</p> <p>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p> <p>무료 상담! 전화주세요!</p>	<p>진료 내용</p> <p>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p> <p>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p> <p>예약/상담 714.530.7001</p> <p>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p> <p>Dr. 백샤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외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p>
--	--	---	--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